

# ‘건강도시 광주’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개소

## 동·서·남구에 이어 북구도 AI 의료 서비스 구축 일환

광주시 5개구가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이하 건강관리소)를 개소·운영에 나선다.

건강관리소 운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에게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와 자가 건강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AI, 의료 관련 연구·기업의 제품 개발 실증을 지원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광주테크노파크와 한국마이크로로봇연구원은 광주지역 최초로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건강관리소를 개소했다.

동구건강관리소는 신체기초·기능측정장비 10종, 두뇌인지측정장비 7종, 데이터 수집장치 5종 등 총 22종의 장비가 구축돼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구도 같은 해 10월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건강관리소를 본격 운영에 나

섰다. 이곳에서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성균관대와 삼성서울병원 관리소가 고령자 중심의 노인과 질환 등의 진료를 담당한다.

또 BMI·심폐능력 검사 등 신체기초건강측정장비 7종, 개인 식습관 분석 등 라이프로그 측정장비 9종, 뇌파 측정 등 질환자 모니터링 측정장비 4종 등 총 20종의 장비가 구축돼 있다.

광산구는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의 도움을 받아 건강관리소를 열었다. 광산구는 수완문화체육센터 3층에 공간을 조성하고 총 16종의 인공지능 장비를 설치했다.

남구도 지난 4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 건강관리소를 개소했다. 남구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 및 자가건강 관리 환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시민의 서비스 이용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지역 AI 의료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이 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구 또한 최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최근 건강관리소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청창업지원센터 2층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에서 직원들이 신체협응측정과 교통사고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VR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이번 공모사업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행 아래 에이아이플랫폼 기업이 참여하고 북구는 장소 제공 등 지원기관 역할을 맡기로 했다.

북구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오는 6월까지 4억원이 투입돼 신체 기초 측정장비를 비롯한 보행·근골격 측정 장비, 두뇌 기능 측정 장비 등 9종 이상의 헬스케어 기기·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지역민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가 33평 규모로 조성된

다. 거동 불편 등으로 건강관리소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에이아이플랫폼 참여기업이 보유한 5M급 카라반을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도 운영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구축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ieong@nilbo.com

## ‘세큰대 서구’ 프로그램 모집 서구, 3개 학과별 강좌·강사

광주 서구가 평생교육 대표 브랜드 사업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세큰대) 서구’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모집한다.

19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세큰대 서구’ 개교와 함께 △시민참여학과 △인문사회학과 △문화예술학과 등 3개 학과를 개설했다. 올해 상반기에 총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600여명이 수강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반기 시민참여학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활동가 및 리더 양성과정,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역량과 관련된 강좌를 모집 중이다.

인문사회학과는 문학·역사·철학 등 삶에 대한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문화예술학과는 음악·미술·무용·영화·디자인 등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능력과 창조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다.

강좌 및 강사 지원 자격은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했거나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이수 △해당 분야 관련 강의 경력 또는 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소지 △해당 분야 관련 연구 및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서류 구비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2일까지 강의계획서와 강사 지원서를 서구 세상에서가장큰대학팀(062-350-4971)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강주비 기자

## ‘선교·다크 투어’ 운영 남구, 양림동·사직동 기반

광주 남구는 양림동과 사직동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선교 및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근대역사문화 마을 양림동과 시간우체국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사직동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투어 프로그램의 주제는 호남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선교 투어와 3·1운동 및 80년 5월 어머니를 다룬 다크 투어리즘 2가지다.

먼저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주제별 4가지 선교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 코스는 일반 선교 투어로 양림동에 산재해 있는 기독교 관련 자원을 탐방하는 코스며, B 코스는 선교사 사택과 수피아여교 교정에 자리한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다.

C 코스는 미국 선교사의 딸이 겪은 80년 5월 당시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제니의 다락방’ 여행길이다. D 코스는 양림교회 한쪽에 3개 공간으로 나뉜 역사의 종정원을 비롯해 최후의 만찬 벽화, 이일학교 터 등을 여행하는 순으로 마련됐다.

선교 투어 프로그램은 연중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운영하며, 투어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최소 1주일 전까지 프로그램 운영단체인 양림선교 동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오는 9월1일~11월10일까지 광주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현장 위주로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1만세운동길에 위치한 이강하 미술관과 사직공원, 오월 어머니 집을 차례대로 방문할 예정이다.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은 이강하 기념사업회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정성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17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멘토링 캠프’를 진행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 광주 광산구, 외국인 유학생 ‘취업 멘토링 캠프’ 운영

### 유학생 취업 정보 지원 등

광주 광산구는 지난 17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멘토링 캠프’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취업 멘토링 캠프는 광산구가 지난해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한 이후 외국인주민과 소통하며 제기된 요구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했다.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

생은 2017년 1600명에서 2022년 3000명으로 5년 만에 90%가 증가했다.

광산구는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한국 직장문화를 알지 못해 취업 시 적응이 힘들다는 외국인 유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특화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모색, 지역 대학과 협업해 취업 멘토링 캠프를 마련했다.

이날 캠프에는 토픽(TOPIK,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광주지역 대학교 3

~4학년 이상 외국인 유학생 100명이 참여했다.

광산구는 취업 특강, 선배 유학생의 한국 사회 진출기 공유, 취업 멘토링, 야외 음악회, 취업에 효과적인 이미지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취업 멘토링 캠프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와 환경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 총장라운페스타·카카오 채널 홍보 이벤트 성황

### 카톡 채널 ‘광주총장시내로’ 개설

광주 동구는 총장라운페스타 및 카카오와 함께 ‘광주총장시내로’ 카카오톡 채널 홍보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동구는 총장로 소비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총장로 상권을 대표하는 카톡 채널인 ‘광주총장시내로’를 개설, 홍보를 위한 공연·채널 홍보 프로모션을 최근 중

장로 우체국 일원에서 진행했다.

채널 홍보를 위해 친구 추가 시 카카오 프렌즈 춘식이 가게 포토존 사진 촬영과 춘식이 풍선 증정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관객참여 타악기 공연 SAMAJA와 각종 버스킹 등도 열려 총장로를 방문한 쇼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송민섭 기자

## 일자리 사회적대화 추진단 출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광주 광산구는 지난 17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 사회적대화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단은 제조업, 민간·공공서비스, 마을일자리 등 4개 분야 핵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대화 체계를 설계·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 의제를 발굴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선 사회적대화 추진단 역할과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추진단장에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연구역역을 수행한 책임 연구자인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광산구는 앞으로 ‘100인의 지속가능 일자리발굴단’을 모집, 제조업·민간서비스·공공서비스·마을일자리 등 4개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 중심의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의 삶터를 아우르는 일자리 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 방안을 찾아가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대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